

시편 묵상 22
(9/16/2023, 토)

찬양: 주께 가까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읽기: 시편 19:1-14

말씀에 대한 이해: 시편 19 편은 다윗의 시로서 '찬양시'로 분류된다. 본 시편이 가진 다양한 의미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Revelation 으로서 이것은 '감추어진 어떤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단어 *revelatio*에서 유래했다. 계시(啓示)의 한문의 뜻은 '열어 보이다'(啓(열 계), 示(보일 시))라는 뜻으로 영어 단어의 뜻과도 연결된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진리를 드러내시는 행위와 그 진리의 내용 자체를 의미한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 알 수 있다. 계시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인간은 계시의 대상이다.

계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1) 자연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혹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선, 지혜, 영원성, 신성 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시 19:1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초자연 계시는 일반적 자연 현상을 뛰어 넘거나 거스르는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다. 성경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현상, 예를 들어 다양한 기적이나 혹은 꿈과 환상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초자연적 계시는 반드시 분별되어야 한다. 모든 초자연적 현상이 다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는 아니기 때문이다.

2)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선하신 뜻에 관한 것이며 모든 인간에게 개방되어 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자연 현상을 통해 주어진다.

롬 1:20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와 법칙 속에도 자신의 뜻을 담아 주셨다. 일반 계시는 인간이 경험하는 삶, 사건, 역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양심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인식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특별 계시이다.

특별 계시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구속적 특별 계시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속적 특별 계시가 있다. 구약성경에는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체험,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 등) 이것은 비구속적 특별 계시로 볼 수 있다.

구속적 특별 계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계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요 14:6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행 4:12 -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다. **요 1:14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특별 계시를 알게 하셨다. **딤후 3:15-17 -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위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계시라는 관점으로 읽으면 그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한다.

말씀 속에 담야 주신 메시지: 1)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시 19:1-6 까지의 말씀은 자연 계시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다. 시 19:1- 4 -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에 끝까지 이르도다.

2) **말씀을 통한 계시.** 시 19:7-11 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율법(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한다. 다윗은 여호와와 율법을 노래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노래했다. 시 19:7, 11 - 7.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11.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므로 상이 크니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한다. 시 19:12-13 - 12.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구절은 죄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기 위한 다윗의 기도를 담고 있다.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린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적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12 절에서 말하는 "숨은 허물"이란 '숨겨져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죄'를 의미한다. 다윗은 13 절에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 죄는 알고 지은 죄이다. 다윗은 알지 못한 채 지은 그리고 알고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며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소망했다. 이러한 기도와 고백은 일상 생활에서 주님과과의 긴밀한 교통과 기도의 삶에서 나오는 마음의 소원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다윗은 마지막 14 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시 19:14 -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모든 언어 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내외적 활동들을 나타낸다. 특히 묵상은 마음의 활동, 생각, 계획 등을 다 포함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닫는 자신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활동과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 위해 애썼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한다.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민감한 내외적 반응이 있는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는가?

함께 묵상하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2.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홍리브가(말레이시아), 흥패밀리(키르기즈스탄), 권영봉, 이창배, 전만규(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3. 지진과 홍수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게 하시고 그 땅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옵소서(시 19:14).